

<인도> “델리로 가자” 항쟁에 승리를!

가난한 농민들이 반동 인민당 정부를 상대로 사상 최대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0년 12월 22일, www.thecommunists.net

1. 인도 농민들이 모디 정부의 친 자본 농업악법에 맞서 대대적인 “바랏 반드” (국가 마비) 총파업 항쟁을 벌이고 있다. 이 농업 악법은 그 동안 최저가격을 정해 농민들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하던 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무케시 암바니와 과탐 아다니 같은 인도 최대 재벌들이 이 개악을 강력히 옹호하며 모디 정부의 친 기업 행보를 노골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디 정부가 명목으로는 “인민당” 정부지만, 실제로는 억만장자와 독점자본의 충실한 집사이자 인민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2. 이번 농민 대중투쟁의 슬로건이 된 “델리 찰로”(델리로 가자)는 과거 영국 식민 지배에 맞선 인도 해방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수바스 찬드라 보스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당시 델리 찰로 해방투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편자브,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최대의 시위가 전개된 데 이어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오디샤, 케랄라 등지로 확산되었다. 투쟁의 최고점은 지난 11월 26일 인도 전역에서 2억 5천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농업 악법과 함께 노동법 개악안에 반대하여 벌인 하루 총파업이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총파업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총파업 이후로 십 수만 명의 농민들이 캠프를 만들고 뉴델리 주변 도로를 봉쇄했다. 12월 8일 또 한 차례 대파업이 있고나서 경찰과의 가투와 시가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농민 활동가들 3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노숙 시위를 하다 동사했다.

3. 여성 농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 이번 투쟁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여성 농민들은 가난한 농민들로서 차별 받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차별 받는 이중의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성 농민들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인도 포럼 단체 마힐라 키산 아디카르 만치에 따르면, 여성 농민들이 전체 농업 노동의 75%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의 토지 소유는 12%뿐이라고 한다.

4. “델리로 가자” 항쟁은 2014년 이래 반동 모디 정부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인도 인구의 근 60%가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져가고 있는 반란이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노동조합, 국민회의당과 각 공산당들 같은 주요 야당들, 여러 주 정부들이 이 항쟁을 지지하고 있다. 대중적 압력이 매우 강력해져서 인도 대법원조차도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우려를 표명하며, 농민, 농업전문가,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법안 연기를 제안했다. 마칸디 카추 전 인도 대법관은 러시아 1905년 혁명 당시 ‘피의 일요일’ 사건을 거론하며 “현재 농민 시위를 현명하게 다루지 못하면 모디 정부는 재앙 수준의 거대한 무질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인도 농민항쟁에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표한다! 모디 인민당 정부가 흑한의 기상 조건을 이용해 농민들의 기세가 꺾이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을 확대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번의 '바랏 반드' 총파업을, 그것도 하루 총파업이 아니라 모디 정부가 항쟁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6. 혁명가들은 노동조합에게 농민들의 요구 실현을 지지, 지원하면서 동시에 노동개약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투쟁에 합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어 온 조합 관료 지도부의 배신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조합원 현장활동가 중심의 투쟁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계속 투쟁"을 이끌고 가야 한다. 또 경찰과 우익 자경단의 폭력 테러에 대항하여 대중을 방어하는 정당방위대도 구성해야 한다.

7. 혁명가들은 또 모디 정부의 힌두 배외주의 억압에 대항하여 무슬림 소수자와 카슈미르 피억압 인민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선동 활동을 농민들 속에서 펼쳐야 한다. 나아가 모디 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민중평의회에 기반한 노동자·빈농 정부로 대체하여 재벌 몰수와 자본가계급 수탈을 단행하는 사회주의혁명만이 유일한 항구적 해결책임을 농민들을 비롯해 투쟁대중 속에서 참을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8. 이러한 방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은 혁명적 세계당의 일원으로 인도에서의 혁명당을 건설하는 투쟁에 하나로 통일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혁명 강령 및 타국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과의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통일단결 할 것을 촉구한다. RCIT에 참가하여 이 위대한 임무를 함께 수행하자!

RCIT 국제사무국

* * * * *

RCIT는 인도에 관한 일련의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문서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China-India Border Conflict: Down with Chauvinist Warmongering on Both Sides! Support the national rights of the Kashmiri and the Nepalese people! 28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ndia-border-conflict-down-with-chauvinist-warmongering-on-both-sides/>

Michael Pröbsting: “Unite to Protect Indi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Chauvinist escapade of social-patriotic Stalinists in the light of the China-India
border conflict, 29 June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n-social-patriotic-stalinists-and-the-china-india-border-conflict-june-2020/>

RCIT statement: India: Down with CAB! Solidarity with the uprising of the
Assamese people! 14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down-with-cab/>

또 카슈미르 해방투쟁에 관한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liberation-struggle-in-kashmir/>